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18.6.8.(금)/ (총 4매)	담당부서	신종감염병·매개체연구과
과 장	이 주 연	전 화	043-719-8490
담 당 자	류 정 상		043-719-8492

지카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 강화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

- 제3회 아보바이러스 워크숍 개최 -

◇ 국내 지카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자들이 모여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 교류의 장 마련

◇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 성과 및 최신 동향 발표를 통한 연구 능력 강화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 국립보건연구원(원장 박도준)은 6월 8일(금)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예방 및 치료 연구 능력을 강화하고자 '제3회 아보바이러스 워크숍'을 개최한다.

*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는 아보바이러스(지카, 뎅기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 바이러스 등)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최근 기후변화, 해외여행 등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.

□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국내 매개체전파 감염병, 특히 지카 및 SFTS에 대하여 병원체 특성과 같은 기초 연구에서부터 백신 및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및 진단제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.

- 올해로 3번째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매개체 전과 감염병 연구자들 약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카, 뎅기, SFTS 등 아보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연구 성과 및 현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며,
 - 특히, 지카 및 SFTS에 대해 우수한 연구 경험을 보유한 정재웅 교수 (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)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.

- 감염병연구센터(센터장 지영미)은 “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및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상용화된 치료제 및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(場)이 될 수 있을 것이며,
 - 아울러, “국내 매개체전파 감염병에 대한 연구자들의 우수 연구 결과가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
- <붙임> 1. 제3회 아보바이러스 워크숍 개최 계획
2. 아보바이러스 개요

붙임 1

제3회 아보바이러스 워크숍 개최 계획

□ 개요

- 일시·장소 : '18. 6. 8.(금) 14:00~18:00,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
- 주최 : 국립보건연구원 신종감염병매개체연구과
- 목적 : 국내 지카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 정보 공유를 통한 연구능력 강화

□ 프로그램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~14:10	인사말씀	감염병연구센터장
14:10~15:00	• Updates of Zika virus and SFTS virus pathogenesis	정재웅 교수
15:00~15:30	• Development of antiviral agents against mosquito-borne viral diseases	고윤영 박사
15:30~15:40	Coffee break	
15:40~16:10	• 뎅기바이러스 백신개발 및 연구현황	장용석 교수
16:10~16:40	• Research of Arboviruses in KNIH	류정상 연구관
16:40~17:10	• Epidemiology of SFTS virus infection and the need for therapeutics for the prevention	최영기 교수
17:10~17:30	종합토의 및 마무리말씀	감염병연구센터장

붙임 2 아보바이러스 개요

□ 아보바이러스

- 모기나 진드기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것으로, 모기나 진드기 같은 절지동물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킴.
 - 아보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질병은 뇌염, 지카바이러스 감염증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, 뎅기열 및 황열 등이 있음.
 - 기후 온난화 및 전 세계 교류 증가로 아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간 전파 속도 및 발생현황이 증가하고 있으며, 사람 간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□ 세계보건기구 (WHO)의 연구 강화 전략

- WHO는 국제비상사태 수준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 등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는 감염병 및 병원체에 대하여 우선 연구대상 순위를 선정함으로써 국제공동차원에서의 연구개발 및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음.
 - 2015년 우선 연구대상 질병이 처음 발표된 이후, 2018년 현재 2차례 개정을 거쳐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및 지카 등이 선정* 되었으며, 이외에 SFTS와 치쿤군야도 우선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음.
 - 또한, 뎅기·황열·웨스트 나일 등과 같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도 공중보건학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.

* WHO 지정 우선 연구대상 질병: 크리미안콩고출혈열, 에볼라, 마버그, 리싸열, 메르스, 사스, 니파/헨니파, 리프트밸리열, 지카, 원인불명 (Annual review of diseases prioritized under the Research & Development Blueprint, 2018.2)